

민주, '백범 김구' 발언 태영호에 "망언 폭주"...與에 "징계해야"

“극우 역사관 대한민국 전복” 맹비난

장경태 “망언 폭주, 조치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백범 김구 관련 인터뷰 내용 등 발언 관련 다수의 논란을 지적하면서 징계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태 최고위원이 백범 김구가 북한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 언급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을 두고 “김구 선생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폄하했다”고 평했다.

이어 “북한 체제를 위해 일하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역사를 가르쳐줬던 건가”라며 “4·3 망언에 이어 김구 선생까지 폄하하

는 건 극우적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이 모두 아는 김구 선생의 통일 국가 수립 노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라며 “이승만 건국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 서는 정부 정책에 편승하려 김구 선생을 모독한 건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태 최고위원의 막말과 망언이 국민의힘에선 상식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 인내심 한계를 시험하려는지 답하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

르렀다”며 “보좌진 실수라 돌러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에 대한 저급한 수준의 정치 공세를 다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 최고위원 망언이 국민의힘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엄중하게 징계하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태 최고위원 발언을 지적하면서 “망언 폭주”라는 등 반발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태 최고위원에 대해 “김일성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며 김구 선생을 폄하하고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 4·3 김일성 발언 때에도 뭘 사과하냐며 북한에서 배운 역사관으로 바뀌어 한다고 하더니 JMS에 빗댄 글을 게재했다고 철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JMS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한 장소가 백범김구기념관이었다는 것도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 최고위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측 비난은 지난 18일 공개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의 태 최고위원 언급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에서 태 최고위원은 “지난 구정 때 KBS의 ‘역사저널 그날’이란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암살됐다”는 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또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일성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한 것”이라며 “그런 북한의 전략까지 알려줘야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의 JMS 관련 언급은 태 최고위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지난 17일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지웠던 데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최이슬기자

박홍근, 방미 앞둔尹에 “반도체지원법·IRA법 해결해야”

“한일회담처럼 뒤통수만 맞는 일 없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내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순방은 반도체 지원법과 IRA법 해결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한일정상회담과 같이 모조리 내주고 뒤통수만 잔뜩 맞고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과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 조항을 발표하며 향후 10년

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했다”며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중국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했고 40%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조항에 따르면 결국 현상 유지만 하라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수년 내 제품 경쟁력 하락으로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반도체 장비회사들의 중국 수출 규

제도 시행되고 있어 오는 10월부터는 생산 장비를 도입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삼성과 SK 등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에 납품하는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까지 줄줄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미국은 핵심 영업기밀, 초과이익 환수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제재로 우리나라 반도체 주권마저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면 반도체 중 첨단 군수 방산 제품 생산에 긴요한 비메모리 반도체만 규제하면 된다”며 “일반 제품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만이라도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10월까지로 돼있는 중국 내 장비 수출 금지조치 유예기한을 최소 3년이라도 연장시킨다면 당장의 숨통은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우리 기업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부디 대한민국 1호 영입사원으로서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재환기자

이석주 여수시의원 발의 조례 3건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 통과해

“여수시민에 필요한 정책 뒷받침하는 조례 위해 계속 연구 할 것”



18일 여수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세 건의 조례가 가결됐다.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최대 3개월 간 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비싼 치료제와 장기 치료로 어려움을 겪

는 희귀질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발의됐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26세 이하 시민에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정부가 여성청소년과 저소득 성인

여성 일부에 대해서만 무료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해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석주 의원은 “여수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